



2026 VISION

혼혼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친구들이 밤에 혼자 어두운 곳에 가 본 적 있나요? 조금 무섭고 떨리죠? 그런데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말을 듣고 밤에 타작마당으로 갔어요. 그곳은 어둡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어요. 룯은 분명 무섭고 떨렸을 거예요. 하지만 룯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룯은 조용히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놀라서 깬 때 “저를 돌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그냥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보아스는 룯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룯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성읍 사람들이 다 너를 착한 사람인 줄 안다”라고 말하면서 룯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룯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도 학교에서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또 무섭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작은 용기도 기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른 선택을 해 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예요.

함께 외쳐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용기있게 살아갈래요”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